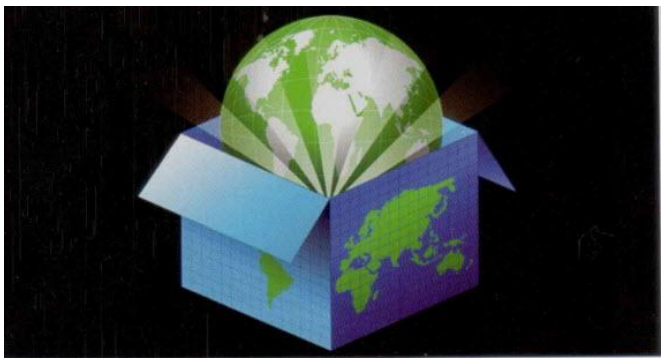
캄보디아 올 GDP 성장율 6.5% 전망



국제통화기금 (IMF)의 오라프씨가 10 월초 캄보디아를 방문한 후 캄보디아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소 수그러졌다고 하면서 수출의 탄력성, 튼튼한 관광산업과 부동산의 회복세가 국제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있어 2012 년 상반기 동안 봉제품의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4% 증가, 관광객은 27%가 증가하였다고 한다.

전체적으로 올 캄보디아의 GDP 성장은 6.5% 정도로 예측하고 있다. 중기적으로 보면 캄보디아의 경제 성장은 잠재적으로 7.5%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인 사업환경, 기간산업과 공공 서비스 분야 등의 개선도 지속되어 왔다.

중반기의 인플레이션 완화로 인해 인플레이션은 올 2012 년 평균적으로 3.5%, 2013 년도에는 4% 선으로 예상하고 있다.

적당한 수출과 강력한 투자관련 수입으로 인해 공식적인 송금을 포함한 현금 부족은 올 2012 년 총 GDP 의 10%정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강력한 해외직접투자(FDI)와 공식적인 대출을 통한 재무적 상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캄보디아의 수출 성장은 13.5%를 보였으며, 수입 성장은 12.3%를 나타냈다. 그러나 중국을 제외한 메콩강 유역 국가(GMS)의 총 무역에서 캄보디아와 라오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실정이다.

태국은 GMS 5 개국가 중에서 2009 년도 총 수출의 68.8%를 차지하였고, 베트남이 25.6%를 차지하였으며 캄보디아는 2.2%, 라오스는 0.6%, 나머지 미얀마가 차지하는 정도였다.

중기적으로 볼때 통화의 적자폭은 GDP 의 5.5%에 달한다. 총 외환 보유금액은 서서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2 년 7 월에는 33 억 달러로 성장하였다.

캄보디아의 성장전망이 우호적이지만 최근의 수출 실적에도 불구하고 국제경제 회복의 불확실로 인한 위험성은 아직도 많이 내포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경제가 침체될 잠재적인 다양한 인자들을 가지고 있다. 노동력 시장의 불안정으로부터 시작하여 극심한 기상조건과 은행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신용의 급속한 확대등을 들 수 있다.

캄보디아는 올들어 상승한 민간부문의 신용성장율이 30%를 넘어 아시아 국가에서 최고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국내외의 재무상태가 쉬워진 것과 금융권의 대출을 위한 노력이 가속을 하게 만들었다.

이에따라 캄보디아 중앙은행(NBC)은 국제적인 기구들로부터 새로운 상업은행의 허가를 지연하라는 압력을 받고있다고 한다. 인구적으로나 신용도 평가에서 상업은행이 너무나 많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전력부문과 농촌 기간산업시설 및 다양하게 증가하는 FDI 의 증가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요소들과 아시아 국가들의 재균형으로부터 발생된 캄보디아의 성장 증가 기대가 강하게 제공되어 온 점도 이들중 하나이다.

이러한 배경을 거슬러 단기적으로 반대적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인 완충장치를 보다 크게 만들 필요성에 초점을 둔 논의와 중기적으로 성장을 위한 구조적인 취약점과 제약조건들을 줄이려는 논의가 필요하다.

재무정책적으로는 2012 년도의 예산 실적이 증진되었다. 이는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중이 GDP 의 ¾%로 기대되고 있으며, 재무적인 흑자도 GDP 의 3.25%선으로 좁아졌다.

보다 진전하여 새로이 구성된 2013 년도 정부 예산은 최우선적으로 캄보디아의 반대급부적인 충격을 보다 잘 흡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기적인 전망을 보면 재무적인 예산의 보다 많은 유동성이 캄보디아가 당면한 막대한 개발의 필요성과 재무적인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긴요하게 보인다. IMF 는 캄보디아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예산유동성 전략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동시에 예산당국의 강화, 공정하고 효율적인 세제, 책임과 투명성 제고등의 재편성이 이러한 전략을 유지하여 나갈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IMF 는 유동성있는 보다 많은 예산이 재무공간을 확대하는 열쇠이지만 최근 적용된 공적 부채관리 전략에서 의무를 담보로 하는 조심스런 관리가 이를 지켜주는 열쇠라는 것에 주의를 요하고 있다.

통화나 금융 부문 정책에 있어 IMF 는 적정한 신용 성장을 향해 한발 나가고 있는 최근의 예산 증가 필요성을 환영하고 있다.

보안을 공동 활용하게 되는 은행간의 시장개발 계획은 은행의 유동성 관리를 증대시키고 보다 효율적으로 시장기반 통화정책의 기본 틀을 만드는 방향으로 박차를 가하도록 도울것이다.

최근의 신용기관 설립은 위험관리를 증진시키고 은행들과 제 2 금융권들의 신용 할당을 실행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IMF 는 캄보디아의 중앙은행이 금융시스템의 건강성을 보호하기로한 약속을 환영하면서 위기기반의 감독강화, 신중한 규제의 엄격한 단속과 같은 능력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모든 관련 감독기관들 간의 감독 조정 향상은 매우 빠르게 진화하는 재무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또한 중요하다.

보다 자활적이고 포괄적인 성장 사이클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완충을 만들어 민간부문의 투자와 경제적인 다양화를 지원하여 이상의 문제들을 보상할 구조적인 재형성이 필요하다.

이에따라 IMF 는 캄보디아 정부의 시기 적절한 기간산업과 기술개발을 환영하며, 정부관리 능력과 교육, 보건 및 사업환경과 같은 공공부문 서비스의 우선적인 시행의 점진적인 증가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2010 년부터 2012 년까지 3 년동안 캄보디아는 평균적으로 6.7%대의 성장을 유지하여 왔다. 그러면서도 인플레이션은 5% 미만으로 유지하여 왔다.

2011 년 세계 경제 환경이 매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극심한 홍수에도 불구하고 튼튼한 7%의 성장을 하였다. 캄보디아는 올해도 이와 유사한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모든 경제 지표들은 캄보디아가 거시경제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외환보유는 수입의 5 개월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채의 압박도 다소 수그러진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수행을 유지하기 위한 신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UN 의 평가에 의하면 2015 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밀레니엄 개발목표(MDG's)의 달성면에서 상위 5 개국의 하나에 들어갈 정도로 실적이 우수하다.

그러나 세계 경제 위기는 훌륭한 진전을 이룩한 캄보디아에 보다 큰 위험적 요소로 자리하고 있다. 보다 심해지고 보다 빈번해지는 자연재해로 인한 기후변화로 인하여 위험이 보다 증가하고 있다.

에너지 증가와 물가상승은 캄보디아의 인플레이션을 불러온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도전은 인플레이션 관리와 국내와 지역적인 수요에 의존하고 있는 성장동력원을 재균형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다른 도전은 경제성장을 지속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과 가난구제이다. 캄보디아는 경제구조의 폭이 협소하고, 고비용이며 기간산업이 부족하며, 공공 서비스의 접근이 제한적이고, 불충분한 토지와 천연자원의 접근이 어려우며, 여유있는 재무상태 구툭과 정부관리의 문제도 해결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패방지법이 2010 년 4 월 적용되어 관심사들에 대한 분쟁에서 보다 깨끗한 정부관리가 제공되고 있다.

관광 이외에도 대규모의 농산업과 관련하여 경제적토지양여(ELC)를 개발보다는 수익을 위한 파렴치함으로 인해 발생한 남용 결과로 일부 정책이 방해를 받고 있는 가운데 농업은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 가고 있으며, 관광은 내년에는 관광객이 2~3 배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캄보디아 해안에서 개발중인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로 인한 수입의 가장 큰 기회를 가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최근의 전반적인 경제발전은 농업, 제조업, 건설, 관광과 서비스의 균정적인 공헌에 의한 것이다.

국제 경기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경제는 농업투자의 지속적인 증가, 비농업부문의 폭넓은 기간산업 발전, 정치적 안정, 능동적인 민간부문의 참여, 재형성을 위한 노력, 공적 개발 지원의 증가와 지속적인 해외 직접투자로 인해 양호한 발전 모델을 유지하고 있다.

(자료원 :Cambodian Business Review November 2012)